

歌客 떠나도 名曲은 남아... 김광석 거리, 청춘의 거리로



대구 대구 대봉동에는 이 지역 출신 가수 김광석을 기리는 '김광석 길'이 있다. 이곳은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구가 자랑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3> 가수 김광석과 대구

전국 최초 대중가수 이름 딴 거리

세계육상대회대 '김광석 그리기' 추진 탄생

인근 카페·골목방송 스튜디오까지

400m 벽화·명곡들... 하루 5000여명 찾아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뺨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서른 즈음에’)

김광석(1964~1996)의 ‘서른 즈음에’를 듣고 있으면 누구나 서른이 된다. 왜 일까? 이십대는 서른이 되면 막연히 모든 것들과 허기가 사라질 거라 기대한다. 반면 서른 이후 세대는 그 순간이 나마 열정과 꿈이 있던 삼십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서른은 생애 있어 번곡점과 같은 나이이다. 그것은 어른이 된다는, 기성세대로 편입된다는 의미다. 대체로 직장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시기가 서른 전후다. 어렵게 인생을 알기 시작한다. 비로소 인생의 쓴맛도 조금은 느낀다.

김광석의 노래에는 그런 아쉬움과 여운이 담겨 있다. 그가 떠난 지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정적인 노랫말과 한국적인 음계가 주는 울림 때문이다. 올해도 그의 기일(1월 6일)에 서울과 대구 등에서 추모 공연이 펼쳐졌다. 서울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린 ‘김광석 노래부르기 2015’에서는 총 65개팀이 참가해 김광석의 음악과 생애를 기렸다.

대구 대봉동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다. 전국에서 대중 가수의 이름을 딴 거리는 이곳이 최초다. 처음에는 도심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콘크리트 거리였다. 그러나 가객(歌客)의 삶과 음악이 덧입혀지자 거리는 생명의 거리로 바뀌었다. 마치 생전의 김광석이 노래로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김광석은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에서 태어나 다섯 살 무렵까지 살았다. 얼마 후 서울 창신동으로 이주했지만 유아기 때의 기억은 그의 생을 지배했다. 시장이 주는 공간의 개방성과 좌판의 흥겨움은 그의 DNA 속에 남아 있었을 거다.

김광석은 대학진학 후 연합 동아리에 가입한다. 민중가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선배들과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1984년 김민기의 ‘개똥이’ 음반에 참여했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 멤버로도 활동한다. 1988년 친구들과 결성한 ‘동물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펼친다. 이후 1989년 솔로로 데뷔하여 첫 음반을 내놓았으며, 1994년에 마지막 정규 음반인 4집을 발표한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중심으로 공연하였는데 1995년 8월 1000회라는 기록을 세운다. 기타 하나로 그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다. 광야와 같은 80년대와 혼돈의 90년대를 건너오면서 그의 노래로 위안받지 않은 이는 없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방천시장이 아주 유명했다. 칠성시장, 서문시장과 함께 대구 3대 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번성했으니까. 물론 지금은

그때만 못하지만, 김광석 길이 생긴 뒤로는 활기가 돈다. 연휴 때는 어쩌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밀려서 받칠 정도다.”

방천1동에 거주하는 정임이(75) 할머니 말에는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 하루 평균 5000명이 이곳을 찾는다든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방학 기간이라 친구들과 함께 온 중고생, 대학생 일행이 적지 않았다. 하나 같이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대학생 김은이 씨는 “아빠가 김광석 노래를 좋아해 언젠가부터 나도 좋아하게 되었다”며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부산에서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잘 단장돼 있다”고 흡족해한다.

김광석 거리의 태동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 중구는 2011세계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마라톤 코스인 방천시장 일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구는 방천시장 예술 프로젝트인 ‘별이별 별시장 프로젝트’를 추켜들었다. 이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전시사업에 선정되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18개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침체된 방천시장이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지역작가들에게 빈 상자가 창작 공간으로 제공되었고 예술가와 상인 일촌 맺기, 주말야시장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김광석 그리기’는 ‘김광석을 그리워하면서(想念 Miss) 그리다(畫, Draw)’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2010년 11월 20일 90m 구간으로 시작, 현재 400여m 구간에 걸쳐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군데군데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김광석의 노래가 나온다.

“일어나 ‘광야에서’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거리에서’ ‘나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등... 하나같이 모든 그림은 노래를 담고 있다. 벽화를 보면 김광석의 어떤 노래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광석의 목소리가 허공 가득 울려 퍼지고, 그 목소리는 이내 그림이 되어 펼쳐진다.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세대를 아울러 왜 김광석이 사랑받는지 알게 된다. 그의 노래에는 각 세대가 거쳐야 했던 통과의례와 아픔, 감성이 깃들여 있다.

“이곳에 오는 젊은 이상은 외지인이다. 김광석을 기억하거나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명절 무렵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중구청 관광개발과 이재형 씨는 김광석 길이 대구의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애둘러 말한다. 그럴 만도 하다. 인근에는 라이브 카페와 골목방송 스튜디오까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장 안에 자리한 ‘속삭속삭수다방’ ‘생각공작소’ ‘추억의 사진찍기’와 같은 공간도 여간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대구=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 | | |
|--|---|--|
| 1일째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면미팅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면미팅 -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불)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 중식 : 자유식 - 석식 : 호텔식 |
| 2일째 - 조식후-민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 제주성음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원시림)술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불) - 포항시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의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 불포항시항 : 옵션(현지직불), 기사, 가이드료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예약시 1인 ₩20,000원 | - 조식 : 호텔식 - 중식 : 현지식 - 석식 : 호텔식 |
| 3일째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 -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불) - 포항시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일내의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 불포항시항 : 옵션(현지직불), 기사, 가이드료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예약시 1인 ₩20,000원 | - 조식 : 호텔식 - 중식 : 토종돼지 - 불고기정식 - 석식 : 자유식 |

※ 참가인원 20명 미만은 별도 보충 가능합니다. ※ 본상품은 제주에서 출발합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 문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동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1실, 줄낙시,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두일동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사 : 문병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